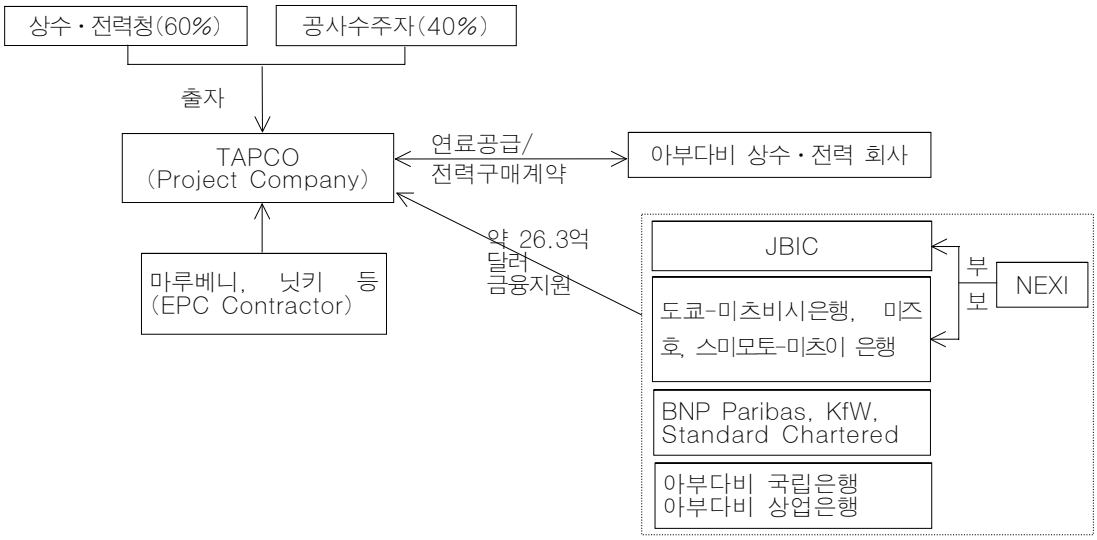
〈그림〉



JBIC이 토쿄-미츠비시(東京三菱)은행,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스미모토-미츠이(三井住友)은행와 함께 대기성 자금 4,300만 달러 및 운전자본 3,000만 달러를 포함하여 12억 7,300만 달러, BNP Paribas, KfW IPEX-Bank, 스탠다드차터드 은행 등이 2,900만 달러의 대기성 자금을 비롯하여 8억 2,90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아부다비 국립은행, 아부다비 상업은행 등은 5억 2,500만 달러의 Equity Bridge Loan을 제공한다.

【박성윤,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 캐나다 EDC의 2004년도 연차보고서

2004년 캐나다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경제성장세에 힘입어 수출증가율이 9%에 달했다. 이는 2000년 이후 최초의 증가세 반전이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달러화 약세에 따른 캐나다 달러 강세 및 고유가로 대외수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EDC의 주요 지원 산업 중 하나인 임업이 목재 수출관련 미국과의 관세 분쟁[3]으로 인하여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EDC의 여신지원액도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3) Softwood lumber dispute로 불리며 미국으로 수출되는 캐나다산 목재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27%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반발하여 캐나다가 2001년 이를 WTO에 제소했고, WTO는 미국이 부당하게 높은 과세를 매긴 것으로 판정해 실질적으로 캐나다의 손을 들어줌. 2003년 말 미국은 부당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캐나다는 목재 수출 공급량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미국 목재시장에서 캐나다산의 비중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의함. 그러나 캐나다에서 임업수출의 비중이 높은 브리티시 콜럼비아, 알버타 등의 주는 이에 반발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는 잔존함.

〈표 1〉 업무 실적

단위: 백만 캐나다 달러

구 분			2002	2003	2004
자기계정	대출		7,381	5,939	6,152
	보험	단기	34,532	37,267	40,177
		중기	8,638	7,410	6,951
		소계	43,170	44,677	47,128
	보증		689	1,244	1,623
	합계		51,240	51,860	54,903

주: 회계연도 1.1~12.31

1. 자기계정 업무실적

2004년도 EDC의 총 승인액은 2003년에 비해 5.8% 증가한 549억 캐나다 달러이며, 이중 보험부문의 비중이 89%로 488억 캐나다 달러를 차지했다. 또한, EDC는 총 146개 개도국 앞으로 116억 캐나다 달러를 지원했다. 특히 캐나다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지원액은 2003년도에 비해 3배 증가한 18억 캐나다 달러를 기록했는데[4], 이는 캐나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직접투자 장려정책에 기인했다. 반면, 전체 지원업체 수는 2003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6,962사로 이 중 중소기업은 91%를 차지한 6,345사였다.

2004년 EDC의 대출은 약 62억 캐나다 달러로 2003년에 비하면 다소 증가한 것이지만 총 승인액 대비 대출비중은 여전히 낮다. EDC는 재정적 자립을 위해 자산확대 및 수익기반 확보를 추구하므로 대출을 선호하지만 실제로 대출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다. 〈표 2〉와 같이 대출비중은 2001년 18.5%에서 2004년 11.2%로 감소하였다.

반면, 보증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나 증가추세에 있다. 현재 EDC는 입찰보증[5]과 이행보증은행보증[6]을 주로 제공하고 있는데, 2004년에는 보증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별도로 개발팀을 설치해 신상품 개발에 주력해 왔다. EDC는 개선된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개도국과의 무역거래나 투자에

〈표 2〉 자기계정에서 대출 비중

구 분	2001	2002	2003	2004
대출 비중	18.5%	14.3%	11.1%	11.2%
보증 비중	1.3%	1.3%	2.3%	3.0%

4) PRI(Political Risk Insurance), 즉 사업수행국의 비상위험에 대한 보험을 통해 지원.
5) 수출자 거래은행이 외국수입자 앞으로 발행한 입찰보증서와 관련하여 부당한 보증청구를 요구받을 경우 그 손실을 보전.
6)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외국수입자에 대해 이행보증을 제공한 은행, 금융기관이 지급청구를 받는 경우 그 손실을 100% 보전.

〈표 3〉 산업별 승인실적[주)]

단위: 백만 캐나다 달러

구 분	2002		2003		2004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임 업	9,718	9	13,093	46	12,925	47
원재료 및 반제품	7,532	51	8,424	68	9,378	271
소 비 재	6,492	65	5,985	40	2,739	22
발전 및 광산	249	2,364	247	4,924	248	5,329
통 신	327	3,865	319	1,118	217	1,075
기술집약적산업	3,232	391	3,333	419	9,136	852
항 공 산 업	973	2,813	948	2,036	1,102	1,382
농·식료품 산업	2,583	7	2,091	18	1,848	15
기 타	3,426	7,643	2,827	5,924	2,584	5,733

주: 국내보험(Domestic Insurance) 실적 제외.

참여하는 상업은행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EDC의 보험부문은 단기수출신용보험 및 상업금융기관이 발급한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보증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2004년 1년 미만 단기수출보험은 402억 캐나다 달러로 전체 보험의 85%를 차지했다. EDC는 단기보험부문의 개선작업에도 착수했는데 민간보험사와의 전략적 제휴, 특정 상업은행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EDC의 보험상품 연계 판매 등에 노력하고 있다.

· 산업별 지원실적

2004년 산업별 지원액은 임업(23.6%), 기술집약적 산업(18.2%), 원재료 및 반제품(17.6%) 등의 순이다. 특이사항은 캐나다와 브라질 간 항공기 보조금분쟁 이후 EDC의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 7.4%를 차지한 EDC의 항공산업 지원비중은 2004년 4.5%로 감소했다.

· 지역별 지원실적

EDC는 특성상 미주(71%)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으며 다음으로 아시아(15%), 유럽(11%) 순이다. 특히 미국(40%)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는 미국에 대한 캐나다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보면 알 수 있다.[7)]

2. 정부계정 업무실적

2004년도 정부계정은 2003년도의 12억 캐나다 달러에 비해 18% 감소한 9억 캐나다 달러를 지원했으며 전액 직접대출로만 제공되었다. 정부계정은 EDC가 위탁 관리하는 계정으로 상업적 원칙에 따라서는 지원이 어려운 고위험 거래지만 국익상 지원이

7) 2003년도 기준 캐나다의 대미 수출비중 86.6%, 수입비중 66.7%.

〈표 4〉 지역별 승인실적

단위: 백만 캐나다 달러

구 분	2002		2003		2004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미 주	24,134	13,541	25,684	11,494	27,287	11,587
유 럽	4,732	2,010	4,865	1,341	4,939	1,070
아시아·대양주	5,113	530	6,115	487	7,216	772
중동·아프리카	553	627	563	1,271	735	1,297

주: 국내보험(Domestic Insurance) 실적 제외.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수출거래(항공기 등)에 대해서 지원한다.

3. 중장기 전략계획에 따른 2004년 활동 내용

EDC는 '2004-2008 중장기 전략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국제법규준수, 사회공헌도 제고, 건전한 재정관리의 3가지 운영원칙을 표방하고 있는데 각 부문별 2004년도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제법규 준수

EDC는 2004년 OECD의 민간항공기 수출신용양해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 활동을 하였으며, OECD가 1997년 채택한 부정부패방지 협약 가이드라인을 대부분 수용한 윤리규범을 제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제적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출품의 거래나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력히 규제하기로 하고 그 세부지침을 마련하였다.

· 사회공헌도 제고

EDC는 2004년 사회공헌도 제고를 위해 직장윤리성 제고, 환경심사 강화, 경영투명성 제고, 사회봉사활동 강화, 조직문화 개선 등을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EDC는 직장윤리 및 직원행동 지침과 환경평가강령을 제정하고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정보를 공개[8]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관련 별도의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을 위한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봉사단

〈표 5〉 정부계정 실적 현황

단위: 백만 캐나다 달러

구 분		2002	2003	2004
정부계정	대 출	527	1,209	987
	보 험	6	1	-
	보 증	-	-	-
	합 계	533	1,210	987

주: 자기계정 회계연도(1.1~12.31) 기준.

8) www.edc.ca/disclosure.

〈표 6〉 재무 건전성 현황

단위: 백만 캐나다 달러, %

구 분	2004년 목표	2004년 결과	2005년도 목표
당 기 순 이 익	102	1,242	162
자 기 자 본 이 익 률	4.5	35.7	4.8
효 율 성 비 율	19.6	18.5	21.5
재 무 안 정 성 비 율	12.8	12.2	10.2

체에 기부도 했다.

· 건전한 재무관리

EDC는 적절한 운영수입을 통한 재정독립을 추구하므로 재무관리의 건전성이 필수적이다. 재무건전성을 측정하기 위해 EDC는 당기순이익, 자기자본이익률, 효율성 비율(Gross Efficiency Ratio)[9], 재무안정성 비율(Financial Sustainability Ratio)[10]의 4가지 지표를 활용한다. 2004년 4개 지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4년 EDC의 당기순이익은 목표보다 12배나 많은 12억 4,200만 캐나다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04년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국가별, 차주별 신용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대손충당금이 9억 9,800만 캐나다 달러나 감소했고,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의 미실현 수익 및 손실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면서 1억 4,300만 캐나다 달러 상당의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익률은 목표치보다 훨씬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나머지 두 지표는 목표치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4. 2004년 활동의 특징

· 대외홍보 강화 및 온라인 상품거래 시스템 개선

EDC는 수출금융서비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이 쉽게 EDC의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 단기보험 등을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ExportCheck, ExportProtect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그 결과 EDC와 단기보험 계약을 하는 기업의 40%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업은행과의 파트너십 강화

아울러 EDC는 2004년에 15개 상업은행 및 민간보험사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이들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중소기

9) Gross Administrative expenses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net revenue excluding debt relief.

10) Adjusted operating income as a percentage of the year's average capital and allowances. This ratio provides a measure of the generation of cash from operations relative to capital and allowances.

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 강화에도 주력했다. 이 제도 하에서 EDC는 중소수출기업에 제작금융을 제공한 상업은행에게 대출액의 50~75%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EDC는 2003년 캐나다 최대의 상업은행인 Scotia bank와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2004년에는 몬트리얼은행, 로얄캐나다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동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04년 중소기업 지원액은 2003년의 100억 캐나다 달러에서 120억 캐나다 달러로 20%나 증가했다.

· 가상무역관 설치를 통한 수출중소기업 지원

EDC는 공적법인이라는 지위와 '캐나다 수출 진흥'이라는 설립목적상 정부의 수출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수출경험이 미숙하거나 현지시장 상황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캐나다 외교통상부 웹사이트에 가상무역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가상무역관에 접속한 기업들은 현지의 수출 정보뿐만 아니라 EDC의 수출금융상품 컨설팅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다.

· 개발도상국 지원 강화

2004년 EDC는 개도국에 대한 수출진흥을 위해 2003년도 대비 10.5% 증가한 116억 캐나다 달러를 지원했는데 멕시코(19억 캐나다 달러)와 중국(13억 캐나다 달러)에 전체 지원액의 약 28%가 집중 지원되었다. 개도국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04년에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사무소 추가 개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사무소 신설 등 현지사무소를 총 7곳으로 확충했다. 특히 캐나다 정부가 대 아프리카 수출진흥정책을 추진하는데 부응하고자 EDC는 아프리카에 광물채굴 및 농업 기술 등을 수출하는 캐나다 기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 진 의】

◈ 영국 ECGD, 입찰·환율변동보완 제도 폐지 검토

ECGD는 최근 유관기간 및 기업에 공개서한을 보내 보험 상품 중 하나인 입찰·환율변동보완 제도(Tender to Contract and Forward Exchange Supplement : TTC/FES) 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CGD는 이미 TTC/FES 제도에 대한 수요 부재와 민간의 대체상품 존재를 이유로 제도의 유지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자체 결론을 내리고 있다.

1977년에 도입된 TTC/FES 제도는 영국 수출업체에게 입찰과 최종 계약체결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환위험을 커버하는 제도로, 도입초기 손실로 인한 큰 폭의 수수료 인상(1984년)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TTC/FES 제도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면서 2000년 이후로는 신규 실적을 기록하지 못했고 현재 1건의 사업만이 운용되고 있다.

또한, ECGD는 지난 몇 년 간 수출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수출업체들이 입찰 참여